

내년 총선, 광주·전남에 '신당 바람' 불까

양향자 추진 '한국의 희망' 창당 준비위 발족
이정미 "노동세력·기후정치·로컬파티와 연대"
금태섭, 김종인 손잡고 9월 신당창당 공식화
박지원 "조국, 신당창당·광주출마...두고 보라"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신당 창당'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신당 창당' 바람은 네 갈래 정도로 나뉘고 있다.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강세를 여전히 인정하면서도 향후

등장할 신당의 파괴력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당장 광주 서구에서 지역구를 둔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이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의 희망'이란 이름의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양 의원은 이날 창당 선언을 통해 "대

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며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희망' 측은 "양향자 의원, 최진석 KAIST AI대학원 교수, 최연혁 한국의희망 정치학교 교장(현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을 주축으로 과학기술·철학·정치학·문화예술·법조·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1천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며 "이 중 40대까지의

청년 발기인 비중이 5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제3차대론을 가장 먼저 떠웠던 금태섭 전 의원도 오는 9월 준비작업을 거쳐 연내 창당할 계획이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정치권 최고의 책사로 인정받고 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남 쪽에 공을 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금 전 의원은 이날 광주 출신으로 현직 편익점 점주이자 작가인 박대중(48)씨를 대변인으로 첫 영입했다. 박씨는 전남대 3대 총학생회장을 지냈

다. 앞서 지난 26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의당의 경계를 더 넓게 확장하고 더 깊게 아래를 향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과 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 정치세력들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통합세력에 대해서는 "기존 노동조합이 보다 폭넓은 사회 연대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동세력, 녹색당을 포함 기후정치 세력,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로컬파티와 같은 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신당 창당과 광주 출마설도 등장했다. 이는 지난 16일 박지원 전 국원장이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처음 제기한 이후 민주당 측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일

측에도 불구하고 더욱 퍼져가는 양상이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조전 장관이 민주당을 택하지 않고 무소속 또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팬덤 정서가 강한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라며 "두고 보라"고 장담했다. 지역에서는 각각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어떤 방향으로 이합집산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판에 미칠 영향력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대선 주자급 거물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찾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반면, 예컨대 향후 신당 창당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낙연 전 총리와 결합할 경우 얼마든지 대선 주자급 인물이 '간판'으로 나설 수 있다는 가설도 등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농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식 의원(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7일째 단식 농성 중인 윤재갑 의원. /연합뉴스

친낙 "이낙연 정치행보 의지" 한목소리

신경민 "개딸의 '이낙연 악마화' 가만히 못있어"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친낙(친이낙연)계가 일제히 '정치행보 재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귀국 직후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대선 이후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이 전 대표가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대표적 친낙계인 윤영찬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자신의 각오,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간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에서 뚜렷한 중심점이 없었던 만큼 친명(친이재명)계에 맞서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이 규합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낙계 일각에서는 벌써 이 대표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경민 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낙연 악마화"가 '개딸'(개혁의 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됐다"며 "계속해서 그러다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친낙계 내부에서도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진명계와 갈등 구도를 만들기도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의원은 "같은 당이고,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같은데 마음과 뜻을 합해 당 혁신과 내년 총선 승리에 같이 매공동 목표를 향해 각자의 행동 방식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수에 '방사능 검사장비' 신규 도입

주철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마련 힘쓸 것"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압박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수시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가 도입되고 시료 채취를 위한 검사 인력도 1명 충원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에 따르면 생산 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를 비롯해 목포, 제주 등 지원 3곳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각 1대 씩 도입하고 현장 시료 채취를 위한 인력도 새로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에 새로 도입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는 대당 가격이 1억6천만원인 '고순

도계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GC-6019)'와 1억4천만원의 '자동시료교환장치(NSC-30)'다. 특히 분석기만 운용할 때의 1일 방사능 검사 처리 건수는 3건에 그치지만, 주 의원의 요청으로 함께 도입되는 자동시료 교환장치를 동시 운용하면 일일 처리건수가 7건으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과 함께 검사 인력도 보강된다.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직원 10명 중 2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위한 분석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시료 채취를 담당할 수산직 공무원 1명도 7월7일 임용 절차를 완료해 7월

말부터 여수에 배치된다. 여수는 전남의 대표적인 수산물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체 방사능 검사장비가 없어 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까지 시료를 택배로 송부해 분석함에 따라 평균 4-5일이나 소요돼 왔는데 이번 장비 도입으로 검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검사장비 도입으로 여수 뿐만 아니라, 순천·광양·곡성·구례·고흥·화순·보성 등 전남 동부권에서 채취하는 수산물 검사 기간이 평균 1-2일 정도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만일에 대비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시스템 강화와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전남대 사업비, 서울대 절반도 못받아

서울대 4천557억 vs 전남대 2천313억

전남대 등 '지방거점 국립대학' 대다수는 서울대가 지원받는 사업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국립대학 10개교가 2021년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약 2조 원이었다. 이 중 서울대학교가 지원받은 금액은 4천556억 원으로 10개 국립대학 중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이어 전남대가 2천313억 원(11.6%), 부산대 2천282억 원(10.4%), 경북대 2천66억 원(10.3%), 충남대 1천922억 원(9.6%), 경상국립대 1천776억 원(8.9%), 전

북대 1천588억 원(8%), 충북대 1천551억 원(7.8%), 강원대 1천346억 원(6.7%), 제주대 797억 원(4%) 순이다. 전남대가 지원받는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51% 수준에 불과하는 등 나머지 '지방거점 국립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병욱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지방거점 국립대에 과감하고 과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